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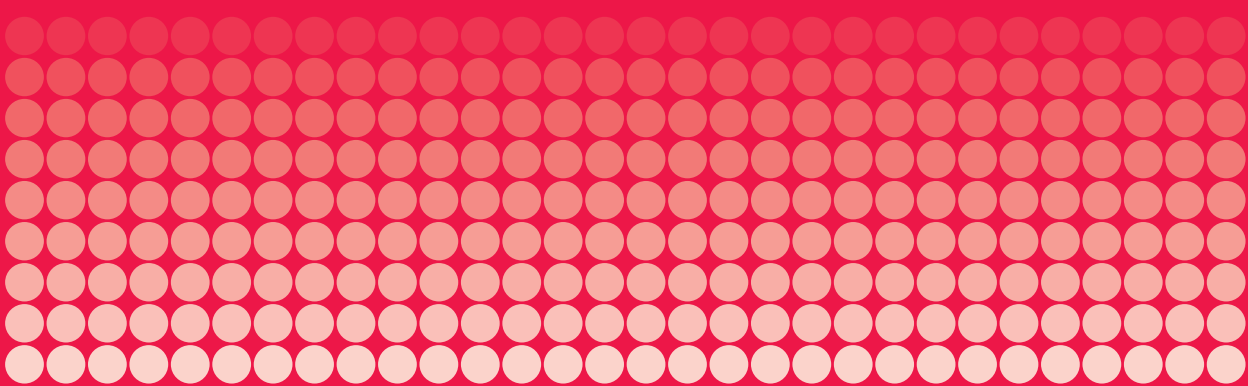
sipri

PEACE
MOMO

SIPRI YEARBOOK 2022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는 분쟁, 무장,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는 비정부 민간 연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2년 SIPRI 연감은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무기 생산, 핵전력, 무력 분쟁 및 다자간 평화 작전과 같은 분야의 원본 데이터와 군비 통제, 평화 및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부문의 최신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2년 SIPRI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요약, 제공한다. 이 요약본에 수록된 데이터 또는 분석을 전재하거나 인용할 시 영어 원문과 직접 대조,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목차

1. 소개: 2022년 국제 안정과 인간 안보	1
1부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2. 무력분쟁,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활동의 세계적 추이	2
3. 미주 지역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4
4.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5
5. 유럽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6
6.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7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8
2부. 군사비 지출 및 군비	
8. 군사비 지출 무기 생산 개발	10
9. 국제무기이전	12
10. 세계 핵전력	14
3부. 비확산, 군비통제 및 군축	
11.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6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18
13.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19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
부록	22



1. 도입

: 2021년 국제 안정 및 인간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우크라이나 전쟁

2021년 말의 국제 안보 지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2021년에는 두 대립 중에 어느 것도 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1년의 어떤 위기도 능가하는 파급을 낳아 국제 체제에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반복된 경고로 인해 더 커졌다. 서방의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식량 생산국인 까닭에 세계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의 안보 제도는 유동적인 상태가 되었고 세계적인 정치적 연합과 전략적 선호 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2년 3월, 35개국 이 러시아를 비판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행동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보편적이지는 않다. 여러 나라들이 이번 위기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서구의 가정에 도전한 것이다. 특히 2022년 2월 초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를 재확인한 중국 역시 이 결의안에 기권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확장된 안보 지평

전반적인 국제안보 상황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악화를 겪은 이후, 2021년에도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보불안의 증거는 만연해 있었다. 무력분쟁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2021년 말까지 새로운 주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바도 없다. 8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20년 간의 서방 개입은 실패로 끝났다. 에티오피아의 무력분쟁도 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개입 없이 지속되었다.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온 세계 군비지출은 지난 해 2조 달러를 고지를 넘어서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는 모두 핵무장 능력을 향상시켰다. 기후 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압박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경로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발표된 기후행동 강화에 관한 미·중 공동 성명은 일부 글로벌 문제에 대해 강대국 간의 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환영할 만한 신호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 체제는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인간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에 대응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갈 길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딜레마와 위기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한 202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우리의 공동 의제'에 담겨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국가 간 연합체들과 유엔 시스템, 그리고 지역별 다자간 조직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



2. 무력분쟁,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활동의 세계적 추이

적극적인 무력분쟁은 2021년에 적어도 46개 국가(2020년 대비 1개국 감소)에서 발생했다. 미주 8개국,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9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8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18개국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하나의 국가 내에서 정부군과 하나 이상의 비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일어났다. 그 중, 주요 무력분쟁(한 해에 10,000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은 아프가니스탄, 예멘, 미얀마 3개국이었다. 고강도 분쟁(연간 1,000명 이상 9,999명 이하 분쟁 관련 사망)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멕시코, 시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 브라질, 소말리아, 이라크, 부르 키나 파소, 남수단, 말리, 수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카메룬, 파키스탄, 콜롬비아, 모잠비크, 필리핀 19개국이었다. 국가 간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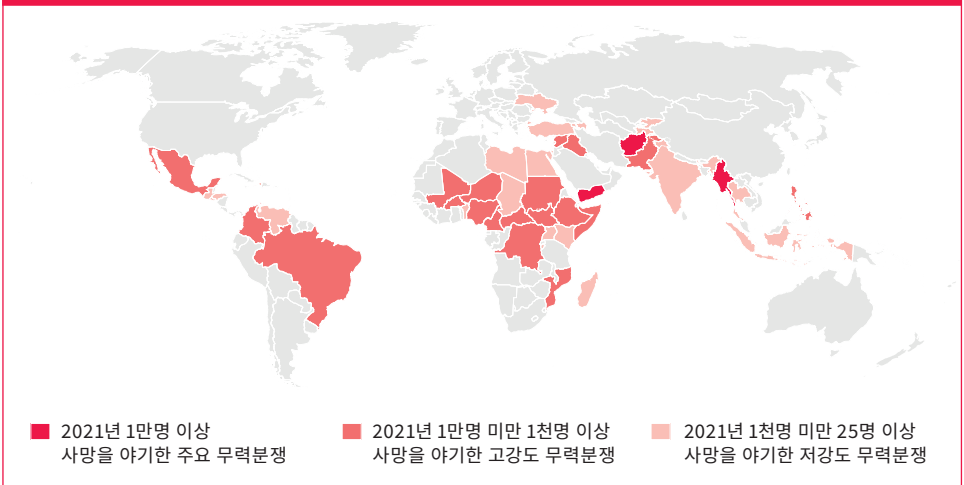
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의 낮은 수준의 국경 충돌 3건 뿐이었다. 그 외 두 건의 무력분쟁은 정부군과 새 국가수립을 열망하는 무장단체(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터키와 쿠르드) 사이에 발생했다.

무력분쟁의 결과

분쟁 관련 총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약 1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보다 1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의 사망자 증가로 인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2020년 대비 59% 증가)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19% 증가)의 사망자 증가에 기인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에서는 3년 연속 분쟁 관련 사망자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 분쟁 관련 사망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구 이동, 식량 불안, 인도적 위기 및 국제인도법 위반 등을 포함하여 무력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때로는 추가적인 요

2021년 무력분쟁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보증 또는 승인과 무관함.



식량 불안

무력분쟁은 2021년에도 계속해서 식량불안의 주요 동인 중 하나였다. 분쟁, 기후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여파 등 3중 충격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인 80개국의 최대 2억 8,300만명의 사람들이 2021년에 식량불안 또는 높은 식량부족 위험도에 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79개국 2억 7천만 명 대비 증가).

인들과의 결합으로)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평화 협정

대부분의 평화 프로세스는 2021년에 중단되거나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휴전 및 연합정부 수립 협정이 체결(예: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시리아)된 덕에 2021년은 무장 폭력이 가장 크게 감소한 해 중 하나가 되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무력분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현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다자간 평화 활동의 동향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63개의 평화 활동이 있었다. 2021년 종료된 3개의 활동은 아프가니스탄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주도하는 확고한지원임무단(RSM); 부룬디의 아프리카연합(AU)의 인권감시단 및 군사전문가임무단; 그리고 러시아 구코보^{Gukovo}와 도네츠크^{Donetsk} 검문소에서의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이다. 새롭게 시작된 4개의 활동은 수단 과도정부 지원을 위한 유엔임무단(UNITAMS), 아제르바이잔의 터키-러시아 합동모니터링센터, 모잠비크의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임무단(SAMIM), 그리고 모잠비크의 유럽연합군훈련임무단(EUTM)이다.

다자간 평화활동에 투입된 인원수는 2021년 한 해 12% 감소하여 2021년 12월 31일 111,858명을 기록했다. 이것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두 개의 다자간 평화 활동 다르푸르의 확고한지원임무단(RSM)과 UN-AU합동평화유지임무단(UNAMID) 종료에 기인한 것이다. 유엔은 모든 다자간 평화활동의 약 3분의 1과 전체 평화활동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면서 여전히 이 분야의 선도기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2021년에도 소말리아 아프리카연합임무단(AMISOM)은 다자간 평화활동의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최고 병력 기여국가로, 우간다와 방글라데시가 그 뒤를 이었다. 유엔 평화활동에서 적대적 행위에 의한 임무수행자 연간 사망률은 2020년에 하락을 보인 이래, 2021년 다시 증가했다. 말리의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단(MINUSM)은 적대적 행위로 인한 사망자와 전체 사망자 측면에서 가장 치명률이 높은 유엔 평화활동이었다.

2021년 ‘다자간 평화활동’이 아닌 평화활동(SIPRI의 정의에 따른)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솔로몬 제도에 국제 합동 ‘평화유지임무단’이 배치된 것에 기인한다. 2021년의 또 다른 추세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 각각 또는 양 진영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어 이것이 평화활동 임무단의 수임사항, 종료와 구조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3. 미주 지역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국제법의 비국제적 무력분쟁 (NIAC) 임계값을 충족하는 여러 무력분쟁이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 전개되었다.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미주 6개국은 2021년에 높은 수준의 무력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는데, 이 6개국은 SIPRI의 전투 관련 사망자 수 기준에 따라 무력분쟁 국가로 정의되었다. 2021년 미주에서는 콜롬비아에서 2개, 아이티에서 1개, 총 3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전개되었다.

북미와 카리브해

멕시코에서는 정부와 시날로아 카르텔, 정부와 할리스코 신카르텔(CJNG), 그리고 두 라이벌 카르텔간 세 개의 비국제적 무력분쟁 (NIAC)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백 개의 소규모 갱단과 파벌이 범죄와 폭력에 연루되었고, 정부군에 의한 인권 침해도 만연했다.

아이티에서는 대통령의 암살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극심한 빈곤, 부패, 만연한 갱단 폭력 및 자연 재해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급증했다.

중미

2021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무력분쟁은 모두 갱 폭력과 관련이 있다. 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거리 갱단 중 두 경쟁 조직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18번가 갱단(바리오 18)은 세 나라 모두에서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2021년에 폭력, 권위주의, 부

패의 증가를 경험했고, 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 유일한 여성 지도자 히오마라 카스트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희망적인 분위기로 한 해를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빈곤, 폭력 범죄 및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2021년 최소 세 개의 분쟁이 중첩되어 지속되었다. 정부와 민족해방군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ELN) 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인민군(FARC-EP) 간, 민족해방군(ELN)과 콜롬비아 가이타니스타 자위군(AGC)간의 분쟁이다.

브라질은 2021년에 전투 및 기타 분쟁 관련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투로 인한 사망자만큼이나 발생했다. 브라질의 무력분쟁은 복잡하고 정의내리기 까다로운 성격을 띤다. 2,620명의 전투 관련 사망자 중 약 57%는 정부군과 미확인 무장단체 간의 폭력 또는 경찰과 정치민병대간의 폭력에 기인했고, 42%는 정치민병대간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군이 갱단과 무장단체에게 빼앗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



4.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2021년 9개국이 적극적인 무력분쟁을 경험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2개국 더 많은 수치이다. 3개국은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주요 국제내전), 인도(저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 및 파키스탄(고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이었고, 4개국은 동남아시아로 미얀마의 주요 무력분쟁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의 저강도 국내 무력분쟁, 그리고 중앙 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 새로운 저강도 국경 충돌이 있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분쟁 관련 전체 사망자는 2020년에 비해 거의 59퍼센트 증가했다(2020년에는 거의 50% 감소한 바 있음).

2021년에는 세 가지 추세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a)중국의 강경 외교 정책과 결합된 중미 경쟁 심화; (b)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테러리즘/대테러 활동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위협 및 갈등; (c)날씨 및 기후 위협의 지속적인 영향.

평화 프로세스

2021년 무력분쟁 중 일부에만 기존 또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가 적용되었다.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중국,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는 카슈미르에서 진행 중인 국가간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휴전이 있었고 중국-인도 관계에 약간의 해빙이 있었다. 2021년 이 지역에서는 5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2020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대가 최종 철수하고 탈레반이 국가를 장악함으로써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아프간 정부의 급속한 붕괴와 탈레반의 당당한 권력 복귀는 탈레반의 국가 통치 및 통합 능력, 인권의 미래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지역 강대국과 나머지 국제 사회의 대응 가능성에 관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남겼다.

미얀마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초 군사 쿠데타로 단기간의 민간인 통치가 종식되었고 전국적으로 시위와 폭력이 고조되었다. 무력분쟁은 저강도 분쟁에서 주요 무력분쟁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에 11,000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말에 정부군과 저항군(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민간인 민병대의 느슨한 연합)은 교착 상태의 전투 상황에 처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가 이를 타개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무장 폭력과 정권 탄압 외에도 미얀마는 경기 침체 심화, 국내실형민 증가, 의료 붕괴, 빈곤 및 식량 불안 급증으로 특징되는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5. 유럽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1년 유럽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통제하기 위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주간 국경 분쟁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저강도의 국제화된 지역적 무력분쟁 등 두 가지의 적극적 무력분쟁이 전개되었다. 2021년 말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두 번째 대규모 러시아 군사력 증강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이 주요 국가간 무력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우려는 2022년 2월 현실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또한 종종 돈바스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한 이후 유럽의 주요 영토 분쟁의 초점이 되어왔다.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충돌하던 돈바스 지역내 무력분쟁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2020년 7월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일으킨 충돌로 2021년 3월과 4월에 다시 확대되었다.

러시아가 2021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11월 평화 회담이 중단되자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에 수천 명의 군대를 배치했고, 지난 4월에 증원한 병력의 일부만 철수시켰다. 러시아의 동기와 목표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출되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침공 위협을 유럽 안보 질서의 광범위한 변화와 우크라이나의 목인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 대중에게 힘을 과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유럽 간의 지속적인 긴장

우크라이나 분쟁은 사이버 공격,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처우, 벨라루스의 정치적 위기,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안보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나머지 유럽 간의 지속적인 긴장의 초점이었다. 2022년 1월 초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간 일련의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두 개의 조약 초안에 대해 2021년 12월 러시아가 자신의 안보 요구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긴장이 절정에 달했다. 러시아는 제안한 문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특정 군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러시아의 제안 내용에는 미국이나 NATO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미해결 분쟁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잠잠하지만 미해결된 갈등으로써 서부 발칸 반도와 키프로스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2020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휴전은 주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충돌과 휴전 위반으로 인한 전투 관련 사망이 무력분쟁 임계치를 넘었다. 또한 유럽의 남부 지역과 그 주변, 특히 지중해 동부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문제들이 발생했다.

2021년 유럽에서는 19건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건 증가한 수치이다. ●



6.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에서는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 등 8개 국가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의 총 분쟁 관련 사망자는 4년 연속 감소하여 2017년 대비 약 75% 감소했다. 예멘은 이 지역에서 연간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하는 유일한 주요 무력분쟁국이며, 이라크와 시리아(고강도 무력분쟁)를 제외한 나머지 무력분쟁들은 강도가 낮았다. 대부분의 갈등들이 상호 연결되어있는 까닭에 지역적, 국제적 세력과 수많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 2021년 MENA에서 14건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이다.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무력분쟁

시리아의 상황은 2021년에도 여전히 불안정했다. 터키와 동맹을 맺은 시리아 민병대는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공세를 강화했다. 2020년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했던 이дли브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라크는 약한 제도과 정부와 일부 민병대 간 균열 증가로 인해 여전히 취약국의 상태에 놓여 있다.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했으며 터키 남동부의 쿠르드 반군과의 장기전 역시 지속하였다.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는 낮은 수준의 시나이 반란이 2021년에도 계속되었고, 모로코와 사기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역학은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14년 간 네 번째로, 11일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자지구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가자지구에서의 분쟁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불안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서안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총파업을 촉발시켰으며, 양측 인구가 혼합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 등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와 집단 폭력을 촉발시켰다.

엘 함라 해방을 위한 대중전선간의 서사하라에 대한 40년 영토 분쟁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알제리-모로코 간 긴장 고조에 영향을 미쳤다. 리비아에서는 2020년 10월에 합의되어 국제적 지지를 받은 휴전이 2021년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처음 수립된 새로운 임시통합정부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선거 연기로 인해 평화 구축 로드맵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예멘

예멘의 내전은 연간 계속되어 이미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중 하나였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오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21년 말, 7년 간의 영토 분열과 무장 단체 증식, 그리고 2차 분쟁의 확산에 이어 내전이 다시 고조되어 정치적 해결의 전망은 요원하다. ●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1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총 49개 국가중 최소 18개 국가에서 적극적 무력분쟁이 진행되었다.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 12개국에서 고강도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저강도 국내 무력분쟁은 베냉, 부룬디, 차드, 케냐,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이 18개 국가중 11개 국은 2020년 대비 더 높은 분쟁 관련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분쟁 관련 사망자 총 증가율은 약 19%에 달했다.

거의 모든 무력분쟁이, 외부 국가 행위자의 개입 및/또는 무장 단체 및 범죄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활동으로 인해 국제화되었다. 분쟁의 역학과 민족적, 종교적 긴장은, 종종 국가의 취약성, 부패, 기본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전달, 천연 자원에 대한 경쟁, 불평등 및 소외감의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21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안보 딜레마는, 무장 단체와 범죄 네트워크의 존재, 선거 관련 폭력, 수자원 불안 및 기후 변화의 영향 증가로 인해 형성되었다. 2020년 지역에서 단 하나의 쿠데타 성공(말리)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4개의 성공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차드, 기니, 말리, 수단), 3개의 실패한 쿠데타가 발생했다(CAR, 니제르, 수단). 2021년에는 이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해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다자간 평화활동(22개)에 참여했다.

티그레이 갈등

2021년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рей 지역에서 연방 정부군과 티그рей 인민해방전선 사이의 무력분쟁은 더 악화되었으며, 분쟁이 인근 지역인 암하라와 아파르로 확대되면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전쟁의 강도는 2021년 동안 상당한 폭으로 변동하다가 연말에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

서아프리카

2021년 서아프리카에서 불안의 핫스팟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였는데, 주로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고 일부 국경을 넘는 충돌도 있었다. 이러한 무장 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에는 각국, 지역, 국제적 군사력과 지방 자위대가 참여했다.

2021년 6월 프랑스는 말리에서 5,000명의 바르칸 작전 병력을 감축하고, 이를 2020년에 설립된 유럽태스크포스 타쿠바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부 지역의 농부와 목축업자 간의 많은 갈등, 북서부에서의 산적의 급증, 남동부에서의 분리주의자들의 봉기 심화에 주로 기인하여, 2020년 대비 분쟁 관련 사망자가 27% 증가하는 등 2021년에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외부 무장단체와 콩고 무장 단체가 정부와 여러 차례 무력분쟁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 간 폭력이 부활하면서 대규모 폭력이 계속되었다. 카메룬에서는 남서부와 북서부의 영어권 분리주의자의 반란과 북부의 반란이 계속되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들(PMCs)과 르완다 군대의 지원을 받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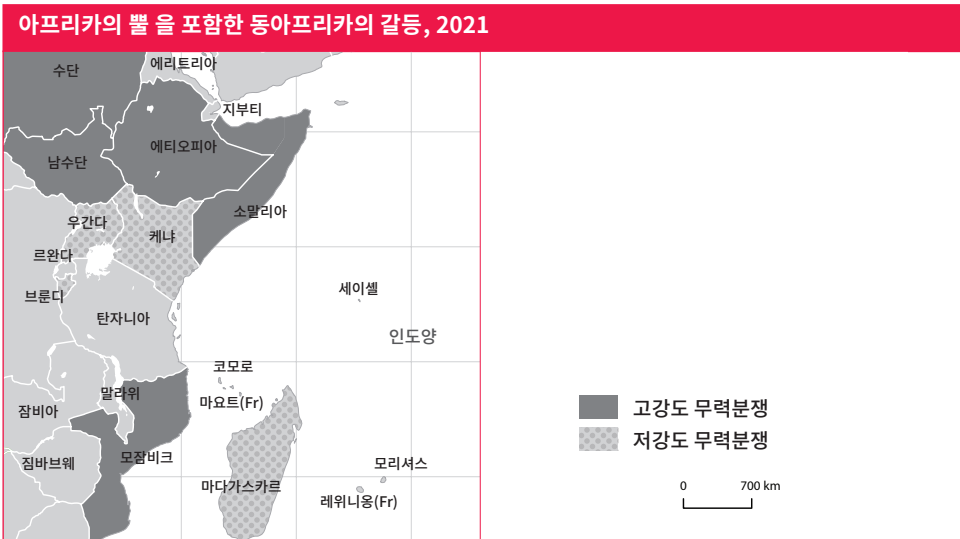


부군이 무장 단체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시작해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프랑스는 2021년 6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 및 군사 협력을 중단했으며 유럽연합은 12월에 예정되었던 군사훈련 활동을 중단했다.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는 2021년 22개 국가 또는 영토 중 9개국 또는 영토가 적극적 무력분쟁에 연루되었으며, 특히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 5개국에서 대규모 무장 폭력이 지속적이거나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9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고 4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최소 3,38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 지방의 반란은 2021년에도 계속되어 2021년 7월 지역군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에는 이 지방의 광물 및 탄화수소 자원의 보다 공평한 분배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소말리아에서 알샤바브 세력은,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하는 평화 활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다. 남수단에서는 2018년 평화 협정 이행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폭력은 계속해서 전국의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수단에서는 2020년 10월의 주바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상황이 악화되어 10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한 해 동안 분쟁 관련 사망자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by SIPRI.



8.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현황

전 세계 군비 지출은 7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2,113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넘어서었다. 이는 세계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며 또 1인당 268달러에 해당한다.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0년보다 0.7%, 2012년보다 12%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궤도는 꺾이지 않았다.

세계는 절대 비율로는 군대에 더 많은 것을 할당했지만, 전체 정부 예산이 군사 예산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 국가들은 총 정부 지출의 평균 6.0%를 군대에 할당했다. 이는 2020년 6.1%, 2012년 6.6%에서 감소한 수치다. 따라서 정부는 군대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비군사적 지출에 더 많은 것을 할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회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지출된 2조 달러는, 의제 2030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2015년 기후변화에관한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비의 작은 부분을 이러한 목표로 전환했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 안보를 개선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시급히 줄이고 사회 기반 시설 및 인간안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포함하여, 군사비 지출의 증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유엔 이니셔티브가 재확인되었다.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지역	지출 (US미화, 단위: 10억)	증감율 (%)
아프리카	(39.7)	1.2
북아프리카	(19.6)	-1.7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0.1	4.1
아메리카	883	-1.2
중남아메리카	11.0	-2.5
그리고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827	-1.2
남아메리카	45.3	-0.6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86	3.5
중아시아	1.8	-0.8
동아시아	411	4.9
오세아니아	35.3	3.5
남아시아	95.1	0.8
동남아시아	43.1	-2.3
유럽	418	3.0
중부 및 서부유럽	342	3.1
동유럽	76.3	2.3
중동	(186)	-3.3
세계 총계	2 113	0.7

() = 불확실한 추정치;

현 지출 수치 현재 가격 및 환율로 미화 달러로 표시. 변경 사항은 상수(2020년), 미국 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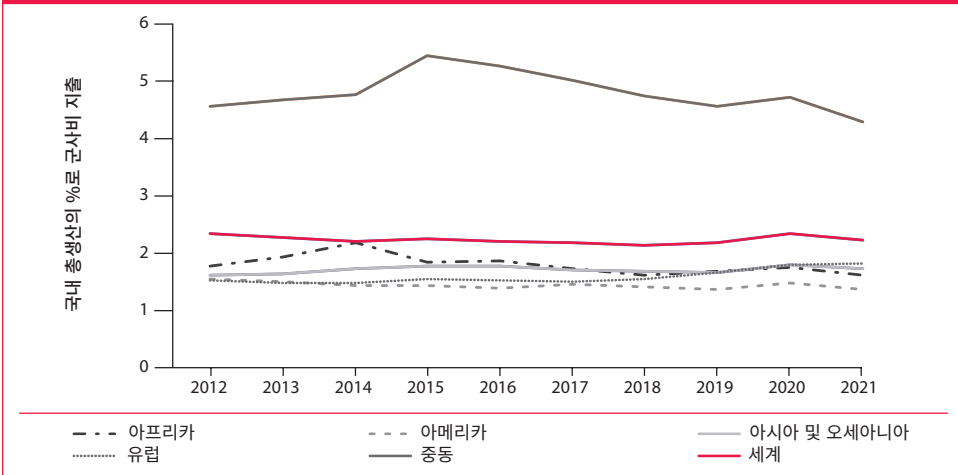
지역별 지출 패턴

아프리카의 1.2% 군비 지출 증가는 3년째 연속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의 군사비가 56% 증가로 45억 달러에 달한 것은 1975년 이후 최고 연간 증가였는데, 전반적인 지역 군사비 추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주 지역의 군사 지출은 1.2% 감소했다. 이 지역의 추세는 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의 지출에 의해 주도된다. 미국의 지출은 2021년에 8,010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의 38%를 점유했다. 이는 명목상 2.9% 증가이지만 실질적으



2011-20 년 지역별 군사비 부담



로는 1.4% 감소한 것이다(1982년 이래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에 기인). 2021년 미국은 거의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주둔을 종료했다. 2001년과 2021년 사이에 미국 정부는 아프간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 이 전쟁에 2조 3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3.5%의 군사비 지출 증가로 적어도 198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세계 2위로 2,93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보다 4.7% 증가한 것이다. 군사비 지출은 지역의 핵심 세력들에서도 증가하였는데, 인도에서 0.9%, 일본에서 7.3%, 한국에서 4.7% 증가했다.

유럽의 군사비 지출이 3.0% 증가하는데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021년에도 3년 연속 증가하여 2.9% 증가, 659억 달러에 도달했다. 군사 예산은 연중 상향 조

정되었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증강된 것을 반영했을 것이다.

중동의 군사 지출은 2021년에 3.3%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지역 전체 군사비의 3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출이 17%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적 감소의 일부는 이란의 11% 군사비 지출 증가로 상쇄되었는데, 이란은 이로써 2021년에 군사비 지출 14위를 차지했다.

무기 생산 및 군수기업

세계 100대 무기 및 군수기업(SIPRI 기준 상위 100개)의 무기 판매는 2020년에 총 5,310억 달러에 달했다. 데이터를 사용한 최신 평가 시기는 2020년도이다. 전 세계 무기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체로 탄력적인 대응을 보였다. 2020년 세계 경제는 3.1% 위축된 반면, 상위 100대 국가의 총 무기판매는 증가했다. 상위 100대 군수기업 중 미국 무기 회사는 41개로서 그 총 무기매출이 2,850억 달러인데, 중국의 5개 회사는 총 무기 매출이 668억 달러였다. •



9. 국제무기이전

2017-21년 5년 동안 주요 무기의 국제이전 총량은 2012-16년 대비 4.6%, 2007-11년 대비 3.9% 증가했다. 2017-21년의 무기이전 총량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았지만 무기이전이 정점에 달했던 1977-81년과 1982-86년의 총량보다 여전히 약 35% 낮다. 국가가 국외의 공급 업체로부터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주로 폭력적인 무력분쟁과 정치적 긴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주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대부분은 국제이전으로 충족될 것이다.

최대 무기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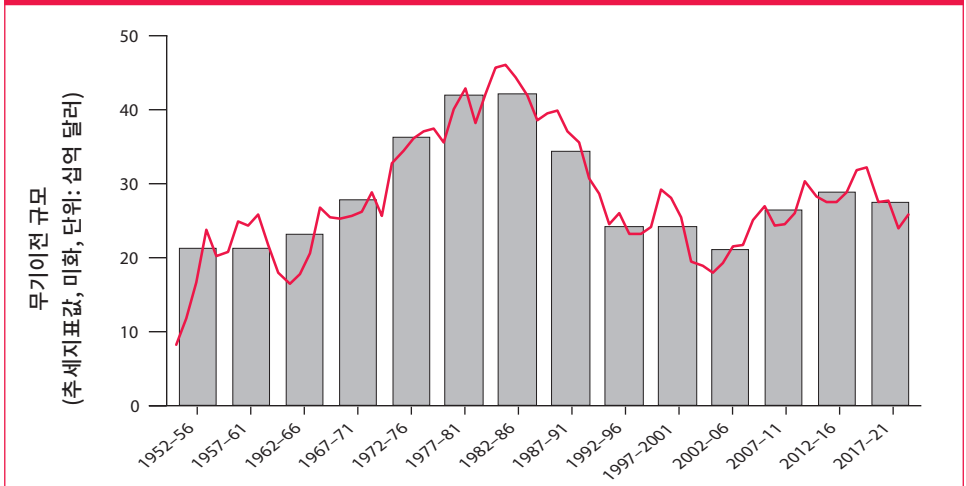
SIPRI는 2017-21년에 60개국을 주요 무기수출국으로 지정했지만, 그 중 대부분은 소규모 수출국들이다. 25대 공급국가가 총 수

출량의 99%를 차지했으며, 그 중 5대 공급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 이 기간 전체 수출량의 77%를 담당했다.

1950년 이래로 미국과 러시아(또는 1992년 이전의 소련)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급국이였다. 그러나 2017-21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보다 108% 더 많았고, 이는 2012-16년까지와 비교했을 때 34% 늘어난 것으로 이 격차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21년 미국의 무기수출은 전 세계 총량의 39%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2-16년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26% 감소했으며 전 세계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16년 24%에서 2017-21년 19%로 떨어졌다.

세 번째 무기 공급국가인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2012-16년 대비 2017-21년 59% 증가한 반면, 중국과 독일의 수출은 각각 31%와 19% 감소했다.

주요 무기 이전 추세, 1952-2021



참고: 막대 그래프는 5년 기간 동안 무기이전의 평균 총량을 표시하고 라인 그래프는 연간 합계를 나타냄.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7-21

수출국	세계 점유율(%)	수입국	세계 점유율(%)
1 미국	39	1 인도	11
2 러시아	19	2 사우디아라비아	11
3 프랑스	11	3 이집트	5.7
4 중국	4.6	4 오스트레일리아	5.4
5 독일	4.5	5 중국	4.8
6 이탈리아	3.1	6 카타르	4.6
7 영국	2.9	7 대한민국	4.1
8 대한민국	2.8	8 파키스탄	3.0
9 스페인	2.5	9 아랍에미리트연합	2.8
10 이스라엘	2.4	10 일본	2.6

최대 무기수입국

SIPRI는 2017-21년 기간 163개국을 주요 무기수입국으로 지정했다. 5대 무기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38%를 차지했다. 2017-21년에 주요 무기수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중동(32%), 유럽(13%), 아프리카(5.8%), 미주(5.5%)가 그 뒤를 이었다. 2012-16년과 2017-21년 사이에 유럽(19%)과 중동(2.8%)으로의 무기 흐름은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34%), 미주(-36%),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4.7%)로의 무기 흐름은 감소했다.

163개 무기 수입국가 대부분은 폭력적인 무력분쟁이나 타국과 긴장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서 수입한 주요 무기가 분쟁과 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10대 무기 수입국 중 최대 5개 국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무력분쟁을 겪었다. 다른 3개국, 중국, 한국, 일본은 주요 국가내 긴장에 연루되었다. 대부분의 무기수출국들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 점유율

수입국 지역	세계 점유율(%) 2017-21	수입량 증감율(%) 2012-16 ~ 2017-21
아프리카	5.8	-34
아메리카	5.5	-36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43	-4.7
유럽	13	19
중동	32	2.8

이 적어도 어떤 갈등과 긴장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참여자라는 점은 해당 국가들이 명시된 무기 수출 정책과 모순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국가 무기 수출의 경제적 가치

SIPRI의 무기이전 데이터는 이전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이 수출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SIPRI는 2020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 가치는, 2011년의 870억 달러(2020년 고정 미화 기준)에 비해 2020년(재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에 적어도 1,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 가치는 2020년 세계 국제무역 총액의 약 0.5%였다. ●



10. 세계 핵전력

2022년 초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 9개국 약 12,70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440개는 잠재적인 사용을 위해 군사적 비축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3,732개가 작전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약 2,000개는 고도의 작전경계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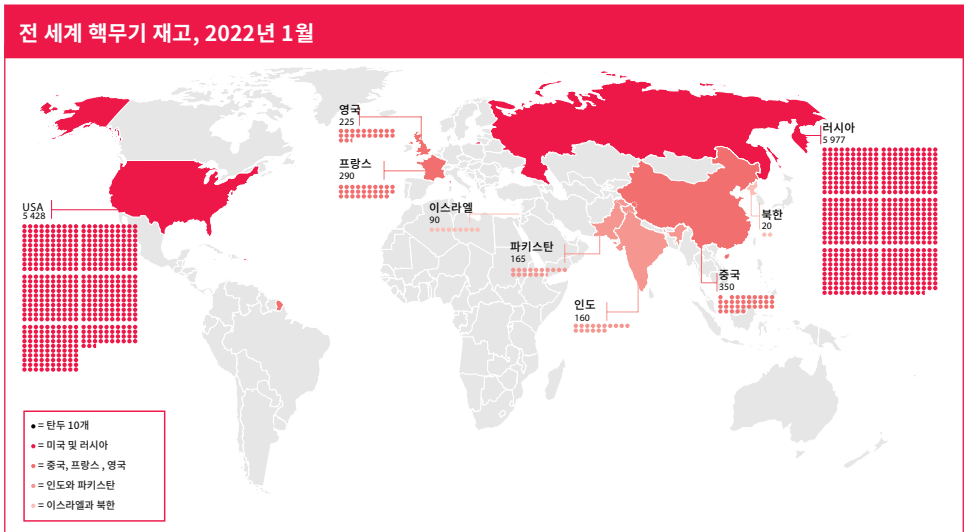
핵무기 보유상황

전반적으로 세계의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러시아와 미국이 퇴역 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작전 탄두의 감축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축 탄두 수는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은 핵탄두, 미사일

및 항공전달체계, 핵무기 생산 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핵무장 국가들의 경우, 핵무기 보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중요한 핵무기의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는 중이며, 여기에는 300개 이상의 새로운 미사일 격납고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비축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영국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1년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운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험도 수행하지 않았으나 군용 원자력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SIPRI는 북한이 최대 20개의 탄두를 조립했으며, 이는 약 45-55개의 핵폭발 장치에 장착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by SIPRI.



2021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현황

핵무기의 원료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파키스탄은 주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지만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핵무기 용도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핵분열성물질전문가패널(IPEM)은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1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현황

고농축 우라늄	~1 250톤
무기 탑재 불/가능	1 100톤
직접 사용 불가 ^a	145톤
사용 불가(안전조치)	10톤
추출 플루토늄	~545톤
무기 탑재 불/가능	~140톤
직접 사용 불가 ^a	~260톤
사용 불가(안전조치)	~145톤

참고: 총계는 5톤 단위로 반올림된다.

^a 이 물질은 무기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안전조치 되지 않았음.

낮은 수준의 투명성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여부와 정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영국 및 프랑스는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 러시아는 전략적 핵전력의 세부 사항을 미국과는 공유하나 대외적인 공개는 거부한다. 중국은 핵전력 개수나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일부 미사일 실험에 관해 발표하지만, 핵무기 비축 규모나 상태에

세계 핵전력, 2022년 1월

국가	배치된 탄두	기타 탄두	총비축량
미국	1 744	3 708	5 428
러시아	1 588	4 477	5 977
영국	120	180	225
프랑스	280	290	290
중국	-	350	350
인도	-	160	160
파키스탄	-	165	165
이스라엘	-	90	90
북한	-	20	20
합계	3 732	9 440	12 705

- = 0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값.

참고: 모든 추정치는 근사치이다. SIPRI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핵전력 데이터를 수정한다.

‘배치된 탄두’는 미사일에 배치되거나 작전 부대가 있는 기지에 배치된 탄두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기타 탄두’는 배치된 모든 탄두와 중앙 저장소에 있는 탄두를 의미하며 일부 준비 후에 잠재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총 비축량’에는 비축된 탄두와 해체를 기다리는 퇴역 탄두가 포함된다. 영국의 퇴역 탄두 중 일부는 아마도 향후 몇 년 동안 증가된 비축량의 일부가 되도록 재사용될 것이다.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미사일 실험을 실행했다고 인정했으나 핵전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핵비축에 대한 지속적인 비공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1.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

2021년은 핵무기통제와 핵확산 방지에 있어 또 한 번의 어려운 해였다. 2021년 초, 러시아와 미국이 2010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으나 New START의 5년 연장이 2026년 이전까지 대체 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후속 조약에서 구형 및 신형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략적 안보 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포했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1985년 선언을 반복한 것이었고,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유사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러시아 선언 이후 7월과 9월에 열린 양국간 전략안보대화(SSD)는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은 그 대화의 일환으로 향후 군비 통제 옵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초당적으로 핵 군비 통제가 효과적이라면 중국이 참여해야 함을 역설했다. 2021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이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및 러시아와의 삼자 회담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의 양자 회담에

참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북한

2019년 이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짧은 핵 협상이 결렬된 이후 2021년까지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2020년 1월, 북한은 2018년에 선언한 바 있는 핵 폭발시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비행 유예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2021년 한 해 동안 해당 실험들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은 계속했다.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더딘 진전을 보이던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2021년에 이르러 급진전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란은 특히 동위원소 우라늄-235의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증가시킴으로써 핵 활동을 강화했다. 이란은 또한 JCPOA에 따라 승인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처음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이 JCPOA를 복원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2021년에 열린 7차례의 협상에서 합의에도 달하지 못했다. JCPOA가 부활할 수 있을지 여부는 2021년 말에도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2021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 총합,
2011년 2월 5일 및 2021년 9월 1일 기준**

데이터 범주	조약 제한 ^a	러시아			미국		
		2월 2011년	9월 2011년	변화	2월 2011년	9월 2011년	변화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	700	521	527	+6	882	665	-217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의 핵탄두 ^b	1550	1537	1458	-79	1800	1389	-411
ICBM, SLBM 및 중폭격기의 배치 및 비배치 발사기	800	865	742	-123	1124	800	-324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참고:

^a 조약은 2011년 2월 5일에 발효. 조약 비준 제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

^b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든 중력 폭탄을 장착하든 각각의 중폭격기는 더 큰 무기 탑재량을 탑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폭격기 1대당 탄두 1개를 운반하는 것으로 집계.

이라고 표현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배치, 보유,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포함하여 핵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수립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러한 금지는 핵군축과 핵억지 사이의 긴장을 전면에 드러냈다: 시민사회와 많은 비핵보유국들이 이 조약을 환영하는 반면, 핵보유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조약을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기초한 기존 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가입하지 않았다.

제10차 NPT 검토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째 연기됐다. 현재 2022년 8월에 열릴 예정인 검토 회의는 NPT 발효 50주년이자 조약이 무기한 연장된 지 25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중동 지역 구축에 관한 연례 UN 회의는 비록 이스라엘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2021년 11월~12월에 두 번째 연례 회의를 개최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2021년의 또 다른 이정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핵실험 폭발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인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25주년이었던다는 점이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5년 동안 CTBT는 핵 실험에 대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고 핵무기 능력 개발을 늦추고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억제했다. 조약 검증을 위한 감시센터와 실험실로 구성된 고유하고 국제적인 글로벌 감시네트워킹은 핵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했으며 독보적인 데이터 및 기술 전문 지식의 원천이 되었다.●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2억 8,600만 건 이상의 코로나 19 사례와 54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팬데믹의 기원은 계속해서 정치적 분열을 가져오는 주제였다. 2021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4가지 기원 가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기 전에 한 동물 종에서 다른 동물 종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WHO 자문 그룹이 설립되었는데 다음 단계 팬데믹 기원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국제 사회가 미래의 팬데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더 잘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2021년 12월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 성립을 두고 글로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생물무기 군비통제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1972년 생물및독소무기협약(BWC)에 따른 전문가 및 당사국 회의가 2021년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BWC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가입국들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중국, 러시아 및 미국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이 이 논의에 영향을 미쳐 상당한 중요한 불일치 영역

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2022년 제9차 검토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만한 협상을 위해 충분한 공통 기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세 나라가 각각 규정 준수, 투명성 및 책임 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타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화학 무기 통제 및 군축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BWC)의 틀에서 보인 불일치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른 2021년 논의에서도 크게 반영되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유엔의 조사팀의 권위와 작업을 훼손하고 이익을 제기하려는 소수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시리아에 대한 화학무기 조사는 계속되었다. 2021년에는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총 80건 중에서 화학 무기 사용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것이 20건에 달한다. 2021년 말,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시리아의 입장에 ‘확인된 격차, 불일치 및 모순’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러시아 시민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노비추 신경작용제에 중독된 사건은 2021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여러 서방 국가 사이에 정치적 긴장을 계속 야기했다.

미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중 아직 화학무기를 파괴하지 않은 유일한 보유국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은 2023년 말까지 나머지 화학무기 파괴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소이탄, 인구 밀집지역 폭발물(EWIPA), 집속탄, 지뢰, 사제 폭발 장치 및 전후 잔류 폭발물질과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주 다자간 협약은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과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 및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다. 그 중 후자인 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진전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으나, 소수의 국가들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6차 검토회의에서 의제 전반의 진행을 방해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틀 안에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폭발물 체계(EWIPA)가 가져오는 인도적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느린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아일랜드가 주도하는 별도의 프로세스는 EWIPA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회의가 지연된 이후 2021년 협의 절차가 재개되었고, 2022년에는 정치적 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무기 체계

자율무기체계(AWS)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2017년부터 정부전문가 그룹(GGE)이 주도해 왔다. 2021년 정부전문가그룹의 논의는 자율무기체계의 개발 및 사용의 법적, 윤리적, 군사적 측면 트랙과 자율무기체계 거버넌스 선택 트랙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정부전문가그룹은 이 두 트랙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정부전문가그룹의 향후 수입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검토회의에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검토 회의는 정부전문가그룹에게 소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1992년 항공자유화 조약

2020년 11월 미국은 1992년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고 2021년 1월 러시아도 탈퇴 결정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 러시아의 탈퇴가 발효된 이후 조약의 장기적인 미래는 불확실해졌으나 조약의 나머지 당사국 대부분은 조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협약의 틀 안에서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협약상 실질적인 진전이 없게 되면 일부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의 악의적인 사용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통제방식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차이와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으로 인해 계속 방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거버넌스에 있어 생산적인 해였다. 2021년에도 정부전문가그룹 협의와 개방형실무그룹(OEWG)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한 국가 주도적 노력들이 유엔 프로세스 내에서 병행되었다.

우주 안보의 진전

2021년 우주 안보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세 가지 영역은 위성 요격 공격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중국과 러시아가 진행했다고 밝힌 실험 포함); 두 가지 별도의 국제파트너십(하나를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함)의 형성을 포함하는 달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개방형실무그룹(OEWG) 소집 총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지지하는 유엔 총회내의 광범위한 여론이다. ●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21년에도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핵 무기 및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거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지역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무기와 이중 용도 품목 거래에 대한 합의된 표준을 수립하고 증진 시키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국제적, 다자간 협약의 가입국 수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국제적, 다자간 수출 통제 수단과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제한을 두고 발생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다자간 수출 통제를 비확산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취약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무기거래조약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 제7차 당사국 총회가 2021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소형무기 및 경량 무기(SALW)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비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무기거래조약이 이미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졌는데, 특히 의무적 보고 준수 약화, 공개 보고서 수 감소, 당사국 다수의 재정분담금 미납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된 전용정보교환 포럼(Diversion Information Exchange Forum)의 업무는 코로나19팬데믹 관련한 제약들로 인해 시작되지 못했다.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1년 동안 유엔 무기금수조치 13개, 유럽 연합(EU) 무기금수조치 21개, 그리고 아랍 연맹 무기금수조치 1개가 시행되었다. 새로

발효중인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1년

유엔(13개 무기금수조치)

• 아프가니스탄 (NGF, 탈레반)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 및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 (부분적; NGF) • 남수단 • 수단(다르푸르)(부분적) • 예멘(NGF)

유럽 연합(21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금수 조치 이행(10개): • 아프가니스탄 (NGF, 탈레반)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이라크 (NGF) • 이슬람국가(다에시), 알 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분대 • 북한 • 레바논 (NGF) • 리비아 (부분적; NGF) • 소말리아 (부분적; NGF) • 예멘 (NGF)

유엔 대응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 유럽연합의 무기금수조치(3개): • 이란 • 남수단 •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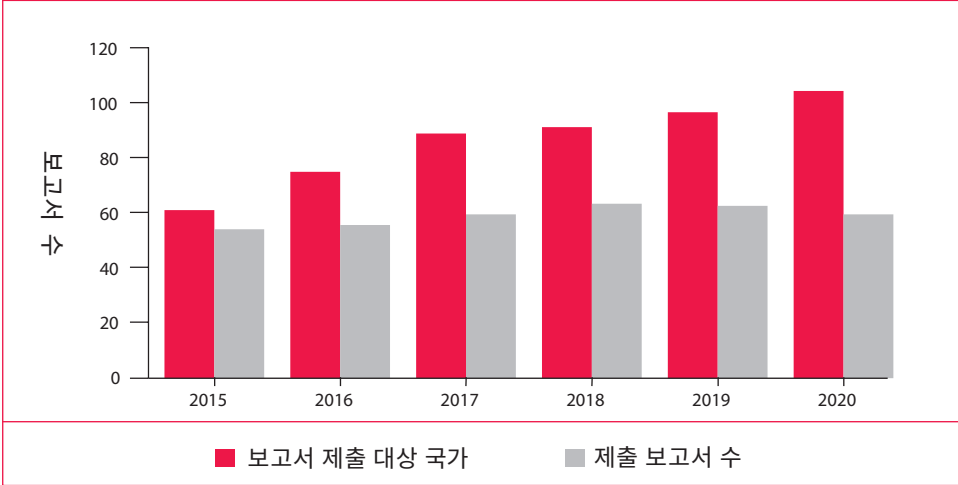
유엔 조치와 별도인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아랍 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ISIL =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NGF = 비정부 세력; 부분적 = 금수 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상 국가의 정부에 무기를 전송할 수 있다.

운 다자간 무기 금수조치는 부과되지 않았다. 유엔 무기금수조치 해제 및 연장 결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높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재차 부과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 기권한 바 있던 남수단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유엔 조사기관과 전





문가그룹은 계속해서 수많은 금수조치 위반 사항을 보고서에 기록했으며,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특정 보고서의 공개를 차단하거나 조사기구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수출통제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 그룹(AG: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통제에 대한 바세나르^{Wassenaar} 체제(WA)의 업무가 계속 영향을 받았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만이 연례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바세나르체제(WA)에서 통제대상 목록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기수출 통제체제의 정치적, 기술적 주제에 대한 의사 결정과 토론에 지속적인 제약이 있었다. 2021년 11월 중국은 유엔 총회 제1

위원회에서 국가안보 목적으로 국가 및 다자간 수출 통제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가까스로 채택시켰다.

유럽연합의 통제

유럽연합은 유럽 공동시장(유럽경제공동체) 내에서 네 가지 수출통제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과 일정 수준의 군사 품목 수출에 대해 통제하는 공동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2021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이중용도규제안을 발표시켰고, 회원국들은 규제안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럽 의회의원들은 또한 유럽연합의 제도가 무기수출통제에서 EU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2021년 수출통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지만 유럽연합 내부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러한 노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2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르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라로통가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 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협약
-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사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 2013 무기거래조약 (ATT)
- 2017 핵무기금지조약



미효력 협정, 2022년 1월 1일 기준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안보 협력 기구

코스타리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사모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이 되었다. 기니, 말리, 수단은 아프리카 연합에서 제외되었고, 기니와 말리는 군사 쿠데타 이후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WAS)에서 제외되었다.●

2021 주요 사건 연대기

- 1월 6일. 도널드 J.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의원들이 대피함.
-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아웅산 수치 여사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군부가 정권을 다시 장악함.
- 3월 10일. 리비아에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 정부 구성.
- 4월 28일.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을 둘러싸고 심각한 충돌이 발생함.
- 5월 15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여러 언론사가 입주한 자지구의 고층 건물이 폭격당함.
- 6월 10일. 프랑스는 말리에서 5,000명의 바르칸 작전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 7월 18일. 국제 조사에서 스파이웨어가 전 세계 수천 명의 활동가, 언론인 및 반체제 인사는 물론 국가 수반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밝혀짐.
-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됨.
- 9월 16일. 호주, 영국 및 미국이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3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공동으로 발표함.
- 10월 18일.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 11월 1일. 코로나19로 기록된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넘음.
- 12월 12일. G7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 채널을 추구할 것을 촉구함.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SIPRI 무기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기업 포함)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2022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2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Oxford University Press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288303-2, 양장본

ISBN 978-0-19-197961-3, 전자책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번역: 이대훈
검토: 김가연, 문아영
출판: 더슬래시
디자인: 소행성디자인



SIPRI YEARBOOK 2022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기술, 무기생산과 무기거래, 무력갈등, 갈등관리,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통제와 관련된 개괄적 정세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2020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2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세계적 지역적 평화프로세스의 동향, 분쟁 관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UN의 전세계 휴전 호소, 그리고 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무력분쟁과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개괄
-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동향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 각각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무기통제: 러시아-미국의 전략적 대화, 이란의 핵 협상,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표를 포함하는 다자간핵무기 통제 및 군축 조약 동향
-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 조사, 전시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법제도의 동향
- 재래식 군비통제: 자율살상무기체제 규제,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국가 행동 규제, 항공자유화조약의 동향을 포함, 국제 제도에 초점
-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 통제: 무기거래조약의 동향,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및 수출 통제체제, 유럽연합의 무기거래 통제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 과정을 포함

이 외에도 부록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 목록 및 2020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